

다산포럼



이남주
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여와 북 중 정상회담,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과 외교장관 회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방북과 노동당 창건 행사 참여 등이 이어지며 북중관계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북중관계의 실상을 파악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북중관계를 보는 시각은 열매관계와 불신에 가득 찬 관계 사이를 오가고 있다. 열매관계라는 인식은 주로 한국전쟁 때 북한 지원을 위해 중국이 참전한 역사와 '전통적 친선관계'를 앞세우는 정치적 수사에서 비롯되었다. 북중관계는 '동지+형제'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현실은 이와 다소 거리가 있다. 냉전 시기에도 북중관계는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고, 1992년 한중수교는 북중관계도 국가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다. 한중수교 이후 북한과 중국은 각각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충하기까지 하는 국가전략을 추구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중국을 통해 북한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는 줄어들고 오히려 북중협력의 가능성을 평가절하하는 인식이 더

청춘 특특



조 성 연
동신대 디지털콘텐츠학과 3년

요즘 러닝 열풍이 거세다. 국내 러닝·마라톤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사람들은 왜 달리기에 열광하는 걸까, 달리기에는 어떤 힘이 숨겨져 있는 걸까. 유퀴즈의 '23년 차 달리는 의사' 편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적 관점에서 달릴 수밖에 없는 몸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 수렵-채집인으로서의 삶은 끊임없는 추격과 이를 위한 신체 활동으로 점철되었다. 짐승을 잡기 위해 끝까지 달려야 했던 조상들이 살아남았기에 오늘날 인류는 장거리 달리기에 최적화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큰 엉덩이 근육, 10cm에 달하는 긴 아킬레스건, 털이 거의 없는 전신, 직접 보행으로 인해 햇빛을 덜 받는 체형 구조는 모두 장거리 달리기에 유리한 신체적 특징이다. 달리기는 운동을 넘어 역사적, 사회적으로도 인간에게 본질적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친다. 그리고 인간은 달린

기 고



이 종 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호남의 고속철도 이용 환경은 여전히 '차별의 상성'으로 남아있다. 경부선이 일찍이 복선화되고 고속철도가 개통된 반면 호남선 고속철도는 10년 이상 늦은 2015년에야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 결과 서울·호남 간 좌석 확보는 매일 전쟁이다. "주말 호남선 KTX 예매는 임영웅 공연 티켓 예매보다 어렵다"는 자조 섞인 말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KTX-SRT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지역균형발전 인프라의 핵심 대안이다. 고속철도 분리, 경쟁 체제는 실패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SR을 분리했다. 명분은 '경쟁을 통한 효율 증대'였다. 그러나 2016년 SRT 개통 이후의 현실은 어떠한가?

새로운 국면의 북중 관계

지배적으로 되었다. 최근 북중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양자 사이의 균열 요인을 주목하는 보도가 많다. 북한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수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안이한 정세판단이다. 또 북중관계의 변화와 관련해 북중협력의 내용보다 경 주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 가능성 등 3자 요인을 더 주목하는 것도 문제이다. 지금까지 협력적 관계를 과시하는 정치적 수사가 안정적 양자관계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협력의 지체이었다. 중국에게 북한의 경제협력은 경제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었고 북한은 중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우려했기 때문에 경제협력의 진전이 어려웠다.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미국, 한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 더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으로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증가하고, 북한도 점차 미국이나 한국과의 관계보다 북중관계 발전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및 안보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라관계에서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측 발표에 따르면 9월 28일 북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선희는 "전략소통을 강화하고 우호왕래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협조'를 심화해 조중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0월 1일 최선희가 왕이에게 보낸 축전에서는 "이번 중국방문시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이룩하신 합의를 철저히 리행하며 조중사이의 친

달리기를 통해 깨닫는 것들

다." 체코의 전설적인 마라토너 에밀 자토팩이 남긴 이 말 또한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다. 새의 날갯짓과 물고기의 헤엄이 본능이라면, 인간의 달리기 또한 삶을 향한 본능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달리면서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달리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지속력에 그치지 않는다. 달리기는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고 고통을 견디며 나아가는 자아실현의 여정이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다리가 무거워질 때 그림에도 불구하고 발을 떼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가까워서 마주하게 된다. 인생 또한 그렇다. 목표를 향한 여정 속에서 고난과 좌절을 겪지만 이를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자 본질적인 삶에 대한 의미다. 나의 25년 삶 역시 긴 마라톤의 여정 같았다. 출발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이었다. 그때의 나는 주어진 길을 따라 가법에 달려 나갔다. 발걸음은 설패로 가득했고 앞날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서며 체력 고갈의 순간이 찾아왔다. 입시라는 언덕길은 숨을 가쁘게 만들었고 대학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달리면서 나는 지쳐갔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숨 고를 틈이 없었다.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끝없이 이어지는 코스처럼 나를 흔들었다.

고속철도 통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수익성이 높은 알짜배기 노선(경부선, 호남선 등)은 SRT가 가져가 이익을 내는 반면, 벽지 노선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코레일은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고속철도의 수익에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공공철도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분리 경쟁 체제의 명백한 실패다. 더 큰 문제는 지역 소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과 정주 인구 감소에 맞서 생활 인구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권의 젊은 세대를 호남으로 끌어들이고 관광 수요를 늘리는 최대 관건은 바로 고속철도 좌석수를 늘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분리 체제하에서는 좌석 공급 확대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 호남은 여전히 교통 황대 지역으로 남아 생활 인구 유치에 큰 걸림돌을 안고 있다. 지방의 활력과 국민편의 증진, 고속철도 통합이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하며 통합이 가져올 효과를 이미 분석했다. 통합 시 열차 운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전국적으로 열차 운행이 하루 20회 이상 늘어난다. 특히 호남 지역은 수서-광주송정 구간에만 하루 4천석, 현재 대비 23%의 좌석이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것이야말로 수도권권의 젊은 세대와 관광객이 주말

선적인 래왕과 실질적인 협조를 추동하기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중요한 견해일치를 이룩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외교장관 회담을 평가했다. 북중대화에서 실질적인 협조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북측이 이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 사례는 흔치 않다. 북측이 이 회담에 11명이나 참여한 것도 이 주장이 수사만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외교부 대변인 때 전라외교의 상징적 존재였다가 '변계와 해양 사무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던 자오리젠의 배석을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과 연관시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동해로의 출항권 확보가 숙원 과제라는 점에서 이 해석은 중국의 회합사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의 태도에 따라서는 관련 협력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미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중라협력과 북라협력에 이어 북중협력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게 되면, 북중러 삼각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 지금 북중관계는 미국 등 3자의 영향을 많이 받던 상황에서 독자적 동력에 기초해 진전하는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북방경제지구는 한국에게도 새로운 발전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 구도를 만들어갈 때 남북 대화와 협력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정세 변화를 반영한 동북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릴 수 있었다. 마라톤 코스 중간에 내밀어지는 한 잔의 물처럼, 삶 속에서도 작은 격려와 응원이나를 붙잡아 주었다. 친구의 위로, 가족의 한마디, 스스로 이뤄낸 작은 성취는 다시 발을 떼게 하는 힘이 되어주었다. 그것들이 나의 완주를 대신해주진 못하지만 포기를 미루게 했고, 결국 달리기를 이어가게 했다. 결승점은 목표를 이룰 때 찾아온다. 성취의 순간은 마라톤 완주의 환희와 닮아있다. 그러나 결승점은 도착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이다. 새로운 꿈이 생기면 다시 달려야 하고 다른 목표가 눈앞에 보이면 또 다른 레이스가 시작된다. 인생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경주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환의 마라톤이다. 달리기는 인간의 본능이자 선택이고 능력이자 책임이다. 자토팩의 말처럼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며, 인간은 달린다. 인간의 달리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행위다.

25살의 결승점이자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 속에서 우리는 지지면서도 달려가고, 흔들리면서도 배우며, 결국 자신만의 길을 완성해 간다. 오늘도 우리는 삶을 향해 달린다. 그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희망을 이어갈 것이다.

에 부담 없이 호남을 찾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다. 통합으로 인한 중복 시설 정리 등으로 연간 4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와 1431억 원의 순이익 증가도 기대된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통합운영'을 명목으로 단순한 차량 교차 운행이라는 미봉책만 제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또한 실현 불가능한 '통합 없는 중편'만을 주장하며 통합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합 없이는 증편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철도 전문가와 노동계의 분석을 외면하는 것이다. 통합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13일 국토부 국정감사, 16일 코레일 및 SR 국정감사, 11월 정부 주도 3차 간담회는 통합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강력한 의지가 절실하다.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 교통 확대 극복, 그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KTX-SRT 통합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늦어도 11월 중에 고속철도 통합 결론을 내고, 내년 설 명절에는 하루 4000석 이상의 좌석이 늘어난 통합 철도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고속철도 통합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社 說

위기의 광주 마이스산업 특급호텔로 돌파를

광주 전시 컨벤션 행사의 핵심시설인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가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광주시는 오는 17일 2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우울하다. '마이스(MICE) 중심도시 광주'를 표방하고 있는데 DJ센터 2전시장 건립이 5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이 전주 등 경쟁 도시가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개관했거나 건립중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의 마이스산업이 위기를 맞은 데는 DJ센터 2전시관 건립 지연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자재와 인건비 폭등으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2배 이상 많은 3000억원으로 치솟는 바람에 설계 단계에서 멈췄다. 그 사이 서울 코엑스와 부산 벡스코 등 기존의 전국 17개 컨벤션센터는 경쟁력 강화에 나섰고 청주 오송은 올해 컨벤션센터를 개관했으며 전주는 2028년 개

관을 목표로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당장의 해법은 55~70%인 DJ센터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다. 다양한 전시행사를 유치해야 하는데 시설 노후화 등으로 만만치 않은 과제다. 5년째 답보상태인 2전시장 건립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광주시의 재정 여력으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5성급 호텔을 유치하는 것이다. 2전시장을 짓더라도 규모 있는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5성급 호텔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방·일신방직 부지와 광주신세계에서 추진중인 5성급 호텔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들 두 곳의 복합쇼핑몰 사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광주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5성급 호텔 유치를 성사시켜야 한다. 광주시는 5성급 호텔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마이스산업의 돌파구를 지금 추진중인 복합쇼핑몰 사업에서 찾아야 한다.

유충 피해 급증 이상기후에 맞는 방재책 시급

미국횡블나방 유충이 집단으로 발생해 광주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가로수가 고사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미국횡블나방 유충은 광주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광주전과 승촌보 등지에서 가로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북아메리카 원산인 미국횡블나방은 몸길이가 3cm 안팎으로 작지만 잎을 갉아먹는 속도가 빨라 광주전과 승촌보 일대에선 고사한 가로수만 공식적으로 1800여 그루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산책이나 운동을 나온 시민들이 벌레를 보고 기겁하는 일도 속출한다고 한다. 가로수 피해도 피하지만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통상 미국횡블나방 유충은 5-6월과 7~8월, 1년에 두 차례 발생하지만 올해는 이상기후로 세 번째까지 발생해 10월에 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벌레들의 습격은 2022년부터 집단으로 발생한 수도권의 러브버그 사태가 대표

적이다. 올해도 인천 계양구에선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정부가 방제 예산 5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인천시는 방제지원 조례안까지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았다. 광주의 경우 미국횡블나방 유충 피해 대응이 가로수 관리주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와 광주환경공단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보니 방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 집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가로수 중심의 방제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벌레들의 습격이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광주시를 중심으로 거기에 맞는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러브버그 사태를 계기로 대발생 곤충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통고를 지켜보면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길 바란다.

無 等 鼓

추석 풍경이 달라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경제 상황과 사회 변화에 따라 차례상 차림부터 모든 풍습이 하나둘 바뀌면서 정성을 중요시하는 전통 문화의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본래 추석은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고 조상을 기리는 명절이다. 만물의 넉넉함에 감사하고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절기인 탓에 개인의 자유와 편의 위주로 변하는 세태를 경계한 것이라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추석에 차례상을 준비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에 그쳤다. 10명 중 6명은 차례상을 차리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상차림에 담긴 이들 가운데서도 전통 방식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간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차례상에 올리는 대표 음식인 갈비찜과 잡채, 송편, 전 등을 직접 만들기 보다는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에서 말기트를 구매해 간단히 조리하는 경우가 대반이다. 반드시 상에 올라가는 전은 추석 전날 반찬 가게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는 민족 대

이동의 행렬은 되풀이되지만 해외 여행을 하는 이들도 매년 늘고 있다. 직장 생활에 지친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여귀성하는 모습은 이미 옛날 풍경이 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결혼을 안 하거나 미루는 젊은 세대들로 인해 새로운 명절 풍경이 생겼다고 한다. 부모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는 아들들에게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한다는 절기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추석은 단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추석이 예전만 못하고 심지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채희종 디지털본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문 화 부 220-0624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여 론 매 체 부 220-066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디 지 털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